

기차안에서 시작된 사랑... 단 하루였기에 더 아름다웠을까



시네필과 함께하는 영화산책

<17> '비포 선라이즈'

비포 시리즈 3부작 첫번째... 전국 극장가서 릴레이 재개봉
에단 호크·줄리 델피 주연... 레코드샵 청음실 장면 인상적

기차에서 만난 청춘남녀가 첫 눈에 끌려 합석한다. '킨스키'를 읽는 남자와 '바타유'를 꺼내는 여자, 화성과 금성에서 온 것 같은 남녀. 둘은 달리는 기차에서 인생에 대해 논한다.

제시(에단 호크 분)와 셀린(줄리 델피)은 서로 다름에도 어딘가 통하는 구석이 있음을 느낀다. 남자는 "초면에 미친 소리 같지만 이번 역에서 같이 내리자"는 제안을 건네고 강렬한 끌림을 느낀 두 사람은 비엔나역에서 하차한다.

킨스키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사랑의 일탈이며, 바타유적 시각으로 금기 위반인 셈. 이들 운명의 종착지는 어떤 모습일까.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비포 선라이즈'를 다시 본다. 세계적인 로맨스 바이블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지난달 17일 전국 멀티플렉스, 광주독립영화관 등에서 28년만에 재개봉해 시네필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성하의 계절, 청춘 남녀가 낯선 여행지 곳곳을 누비는 낭만적인 내용은 로맨티시즘의 극치를 선사한다. 총 3부작인 '비포 시리즈'는 향후 차례로 전국 극장가에서 릴레이 재개봉할 예정이다.

수년에 걸친 사랑의 생물연대는 일출로 은유된 '비포 선라이즈'에서 시작해 10년 후 사랑의 잔향을 간직한 '비포 섀넌'의 일몰, 식아가는 한 밤중 '비포 미드나잇'으로 이어진다.

사랑의 탄생을 그린 트릴로지 첫 작품 '선라이즈'는 시리즈 가운데 작품성에서 밀두에 있다. 명장면 중에서도 으뜸 가는 대목은 앞서 언급한 기차 선 외에도 레코드샵 'ALT&NEU' 청음실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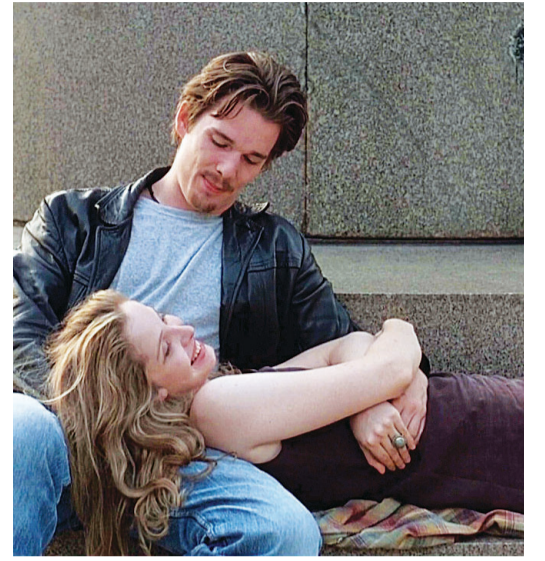
제시와 셀린은 한 뼘 거리 음악 감상실에 들어가 캐스블롬의 'Come here'를 함께 듣는다. 가까이 다가오라는 신호일까. 청음(聽音)의 순간 남자는 물레여자의 뺨을 바라보고, 내리갈았던 시선은 은밀히 그의 입술로 향한다. 사랑의 탄생을 목도되는 순간, 둘은 어떤 대화나 스킨십 없이도 '하나'가 된다.

실제로 이 공간은 '알트우트노이'라는 이름으로 오스트리아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고풍스러운 느낌이 물씬 흐르는 공간은 유독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한다는 후문이다.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당신이나 내 안이 아니라, 우리 사이 비좁은 공간에 있을 거야" 작품의 모티프는 대사가 주는 울림에 있다. 언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랑의 매개라는 듯 다채로운 스



비엔나행 열차에 몸을 실은 제시(에단 호크 분)는 기차에서 우연히 셀린(줄리 델피)을 만나 합석한다. 평범한 대화지만 이들은 강렬한 '끌림'을 느낀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이들은 도시 곳곳을 누비다가 헤어질 준비를 한다. (스틸컷)

크립트가 비엔나 도시 곳곳에 쏟아진다.

명대사들을 하나씩 미분하면서 뜻을 음미할 수도 있지만, 해석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첫사랑'의 감정 그 자체를 탐미하는 것도 하나의 감상법이다. 그런 점에서 길거리 시인이 '필크셰이크'라는 단어로 쓴 즉석 시가 졸작이라거나, 두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서 연락처 하나 주고받지 않은 것이 '기대를 배반했다'라고 평하는 것은 속단이다.

많은 고전들은 이미지, 상징 등으로 감독의 의도를 암시한다. 마치 예능 프로그램에서 몸짓을 보여 주면 무슨 의미인지 맞추는 게임(셔레이드)처럼 상상하는 재미를 주지만, 본래 뜻이 왜곡되는 측면도 있다.

'비포 선라이즈'는 셔레이드 없이도 사랑의 만화경을 분명히 펼쳐 보인다. 1시간 40분 내내 무수한 대사를 나열하며 한 존재가 다른 이에게 스며드는 과정을 적실히 포착한다.

그러면서 수려한 미장센도 놓치지 않는데 엔딩 크레딧 직전만큼은 이들이 누렸던 도시의 텅 빈 모습을 보여준다. 그 어느 낭만적인 도시라도 사랑과 사람 없이는 황량한 비둘기 공터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끝내 둘은 일 년 후 재회를 약속한 채 기차역에서 이별한다. 이 장면이 특히 여운을 남기는 까닭은 무엇일까. 영화라는 디제시스(diegesis·허구적 세계)에서

펼쳐지는 발화들은 다큐가 아닌 이상 실제의 말하기와 구분된다. 링클레이터 감독은 18년에 걸쳐 '작중 시간'과 '현실의 시간'을 일치시켜 허구성을 희석한다. 영화적 경험을 논-디제시스(현실적)의 감각으로 연결시키는 이 방식은 몰입감을 증폭시킨다. 제시와 셀린의 만남, 이별, 기차림이 관객들의 그것처럼 느껴지는 까닭이다.

물론 이러한 파토스는 3부작의 서사를 인지한 상태에야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다행히 '비포 선라이즈'는 재개봉작인 덕에 관객 대부분은 그 흐름을 이미 알고 있다. 스크린에 다시 오르는 비포 시리즈만이 줄 수 있는 매력 아닐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음악으로 자아 발견 '뜯구름 관찰기'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10일 서석당... 국악단체 '부나비즈' 출연

'자아를 찾아주는 흥신소'라는 독특한 컨셉에 야기를 담은 실험적 무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재단) 전통문화관은 열여덟 번째 토요일상설공연 '뜯구름 관찰기'를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펼친다.

국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르 융합단체 '부나비즈'가 출연, 전통예술의 신명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야쟁과 25현 가야금이 돋보이는 '회귀'로 시작하는 공연은 '인식', '치즈인더트랩', '개구리 과실치사' 등 지난해 부나비즈 단독공연 'MISSION: 뜯구름잡기'에서 소개했던 개성 있는 작품들로 이어진다.

'공존: 평행세계'와 '공존: 삶, 모순'과 같이 우리 사회의 소통 문제와 이상향에 대해 고찰하는 곡들도 울려 퍼진다. 칠현금 및 12현가야금, 전자음악과 타악의 사운드가 어우러지는 작품들이다.

공연의 부제는 '부나비흥신소가 사람을 찾아 드립니다'. 음악을 통해 현대인이 잃어버린 자아를 발견시킨다는 취지에서 기획한 공연인 만큼, 관객에게 서사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극 요소가 사이사이에 접목돼 있다.

한편 2021년 제29회 임방울국악제 퓨전국악 우수상을 수상한 '부나비즈'는 전남대 대학원 박사과정(국악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철(전통타악),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인 김관희(가야금·양금), 작곡가 이지은(특수악기), 한예중 음악테크놀로지과 재학생 안버리(전자음악)로 구성된 전통예술 팀이다.

재단 전통문화팀 송현민 공연 담당은 "부나비즈의 무대는 기존 정형적인 포맷을 탈피한 레퍼토리, 관객과 소통하는 형식 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흥신소"라는 참신한 테마 속에서 펼쳐지는 퓨전국악의 향연을 즐기며, 관객들이 마음속에 품



국악 베이스의 장르 융합단체 '부나비즈'. (광주문화재단 제공)

고 있던 응어리를 꺼내놓고 삶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 8일 펼쳐진 '이시준태평소연구소' 공연 컨셉샷. (카페뮤지엄 CM 제공)

여름밤 식히는 포크송 라이브카페

카페뮤지엄 CM, 오늘 '라이브 콘서트'... 임용 출연

도심 한 편에 자리한 라이브 카페가 포크송의 매력으로 물들다.

카페뮤지엄 CM(이하 CM)이 9일 오후 8시 CM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관객들을 만난다. 151번째 '라이브 콘서트'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지역에서 활동해 온 가수 임용이 출연할 예정이다.

광주 출신인 임 씨는 그동안 '바다프로젝트' 골방음악회'라는 기획으로 100회 이상 지역민을 만나 왔다. 올해 오월창작가요제 연출을 맡은 기획자며 2014년 '바다프로젝트 1집'으로 데뷔한 솔로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그는 'Hidden forest', '비디피 특별한 협업집', '연중맑고흐림' 등 앨범을 발표해 자신만의 음악적 감수성을 표현해 왔다. 공연 레퍼토리는 현장 공개.

이에 앞서 CM은 지난 8일 '목요 우리소리 in

CM'이라는 주제로 전통예술공연을 펼쳤다. 국내에 하나 뿐인 '태평소 브라스 밴드'에서 활동 중인 이시준이 게스트로 출연, 관객들에게 전통의 신명을 선사했다.

1996년부터 이시준태평소연구소를 이끌어 온 이 씨는 전통과 퓨전을 아우르며 전국 공연을 진행해 왔다. 현재는 국악 연주와 전통의 보존을 목표로 악기 제작, 유통, 교육, 공연 등 '국악 인프라 구축'에도 전념하고 있다.

CM 사군 음악감독은 "라이브콘서트, 화요일 래시 등 다채로운 기획을 통해 CM은 각기 다른 장르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의 공연을 한 자리에 올리고 있다"며 "이번 무대에서는 지역에서 끈기 있게 활동해 온 아티스트가 포크송의 향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인 1주동 필수, 전화 예약.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재단, 가족축제 '하우편 예술놀이터' 남원에서 운영

어린이 문화예술 콘텐츠가 남원에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ACC재단)은 오는 12월까지(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 'How Fun(하우편) 예술놀이터'를 운영한다.

ACC 어린이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하우편 예술놀이터'는 어린이·가족문화축제로, 남원에서 모두 10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

지역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이며, 선착순 무료. 교육은 매일 1일 남원시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먼저 오는 24일은 '나만의 여름정원 속으로', '타고가자 아시아로!'를 선보인다. 전자는 가족과 함께 작은 여름정원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며, 후자는 아시아의 교통수단과 여행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티브로 입체 액자를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5월 ACC 어린이·가족문화

축제 '하우편10'에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의 작가 연계 교육키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기형 ACC재단 팀장은 "이번 하우편은 아시아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한 예술장작 프로그램을 남원지역 어린이들과 공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ACC재단은 다양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을 매개로 지역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